

2019

온갖문제
요구

만점 팀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2019
시민참여연구
공공정책연구

어디까지나 우리 연구

〈2019 온갓문제연구 - 공금한 길에 연구〉는 공금중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시민연구자에게 연구비 지원(최대 250만원)을, 연구가 낮은 시민에게는 열린 워크숍 '온갓연구실현실'을 통해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나누는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2019 온갓문제연구 - 공금한 길에 연구〉를 진행하며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 시민 연구자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비빌 언덕이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분은 “연구란 나와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상관있을 줄 몰랐어요”라는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비용과 과정이란 장벽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작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자와 함께 작게 시도하며 연구의 의미를 '제도권 안의 학습'에서 '자유로운 학습'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과정에서 소외와 배제를 제거하여 연구가 대담하기보다 즐거운 여정이 되는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시민연구자 분들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되는 세상〉을 위해 지금처럼 멀리 혹은 가까이서 응원을 더해주시길 기대하며, 그날까지 희망제작소는 〈온갓문제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연구

어디까지나 우리 연구



온갓문제연구
2019

조효진

만점 팀

시민연구자

조효진
정혜정
이성화
주영진
박민정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혜정, 효진, 영진 씨는
시민연구자로 뭉쳤다. 연구를 매개로
무언가 작당할 수 있어 즐겁다는 이들은
현명한 소비자를 위한 기업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정혜정

이성화

주영진

박민정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연구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 지원사업인 〈2019
온갖문제연구 - 궁금한 길에 연구〉에
선정된 위 연구진이 수행했습니다.



온갖문제연구 - 궁금한 길에 연구





목차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인 정지강
기획 기은환, 손혜진
편집 방연주
디자인 조현상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114-14)

T. 02-3210-0909
F. 02-3210-0126
E. hope@makehope.org

www.makehope.org

facebook
@hopeinstitute

twitter
@hope_institute

0 2	I. 연구 개요
0 2	1. 연구 동기
0 3	2. 연구 목표
0 4	II. 연구 재료
0 4	1. 언론 보도자료 활용
0 4	2. K-SDGs 유형 활용과 개선
0 8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0 8	1. 연구대상
0 9	2. 연구방법 및 절차
1 0	IV. 연구결과
1 0	1. 빅카인즈 검색어 설정을 위한 K-SDGs 키워드 분석
1 1	2. 빅카인즈를 활용한 언론 보도자료 수집
1 2	3. K-SDGs 유형 및 공부정 사건 분류
1 4	4. 중복 기사 정제
1 5	5. 기업 행동 DB를 활용한 기업행동 이력 평가
2 2	V. 정보 공유를 위한 시각화 및 웹페이지 제작
2 2	1. 연구대상
3 0	2. 연구방법 및 절차
3 1	VI. 연구를 마치며

〈2019 온갓문제연구 -
궁금한 김에 연구〉 연구보고서는
희망제작소와 사전협의 없이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2019 온갓문제연구 -
궁금한 김에 연구〉 연구보고서는
시민연구 지원사업으로
희망제작소 입장과 무관합니다.

모 - 든
시 민 이
연 구 자
입 니 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02
02
03

04
04
04

08
08
09

10
10
11
12
14
15

22
22
30

31

연구 개요

I.

01. 연구 동기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불매 운동을 진행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환경, 젠더,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쏟아지는 뉴스와 보도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만, 때로는 그 정보의 방대함이 사건 전체를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즉, 매일 쏟아지는 정보에 묻혀, 우리에게 기업이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지향적 소비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MZ세대의 소비 문화

- 환경, 젠더,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삶의 가치에 대한 결정권 또한 스스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출처: 싱글리스트, 에디터 용원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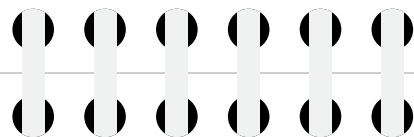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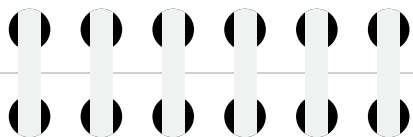


언론의 영향이 약화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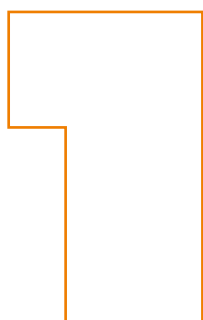
- 언론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줍니다. 하지만 뉴스의 홍수 속에서 시민들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언론 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업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연구 목표



1. 가치관별 기업 평가

환경, 젠더, 지속가능성 등 개인의 가치관에 맞게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K-SDGs의 17가지 목표에 맞춰 기사를 분류합니다.



2. 한눈에 쉽게 판단

17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된 기사를 기업별, 가치관별, 시간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3. 시민이 주도하는 가치경제

프로젝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어 기업을 관찰, 견제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환경, 젠더, 지속가능성 등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K-SDGs 17가지 목표별로 기사를 분류한다. 두 번째, 분류된 기사를 활용해 기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시각화한다. 세 번째, 프로젝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로써 시민이 기업의 행동을 인지하고, 견제하며,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지원하는, 가치지향적 소비 문화를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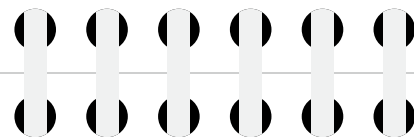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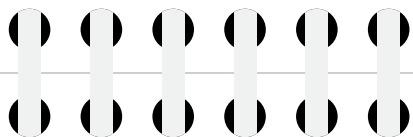
01. 언론 보도자료 활용

기업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뉴스, 신문 등의 언론 보도를 활용했다. 언론 보도는 기업행동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접근하기 쉽고, 분석에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여러 언론사에서 하나의 사건을 중복으로 보도하여 단순히 기사의 보도 건수로 실제 사건의 발생 건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한 단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 보도를 정제할 방법을 고안하여 사건의 실제 발생 건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통계자료, 시민제보 등 추가적인 정보와의 연계는 본 연구 진행 후 추후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02. K-SDGs 유형 활용과 개선

1) K-SDGs 소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류 공동의 목표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Bottom-up(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2030년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SDGs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틀 하에 국가균형발전, 남북 간 평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을 포함하여 우리 고유의 사회



발전 비전을 담은 2030 국가 비전이다(환경부, 2018).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마찬가지로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전문가,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켜나가야 할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 214개 지표체계를 만들었다. 따라서 K-SDGs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우리나라 시민의 참여 의지를 담은 목표이기에 우리는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평가에 K-SDGs 목표를 반영하고자 했다. 즉, 교육, 일자리, 건강 등 K-SDGs 목표별로 기업의 행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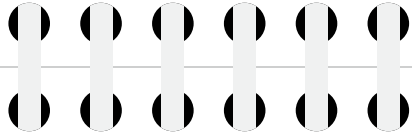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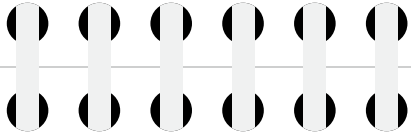


2) K-SDGs 목표를 반영한 기업평가 틀(안)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5개 기업의 행동을 조사하여 K-SDGs의 목표를 반영한 기업평가 틀을 만들었다. 기업 행동별로 가장 합치되는 목표와 세부 목표에 맞추어 평가 내용과 기업행동 사례를 정리했다. K-SDGs 이행평가 방법에 따르면 단일 행동으로 발생한 사회적 효과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하는 모든 목표에 이행 현상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세부목표 별로 포함하는 기업행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표 1.
K-SDGs
목표를 반영한
기업평가를
(안)

K-SDGs 목표 반영			기업행동 조사 결과 반영	
	목표	세부	세부 목표에 따른 평가 내용	기업행동 사례
1	빈곤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후원금 기부, 난방유, 급식비 지원 등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2-2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가 및 농업인 지원	농촌 일손돕기 활동, 지역 농가 유통지원, 청년 농부 육성 등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3-1	만성질환 및 위험요인 관리	치매 예방 캠페인, 독거노인 안부 전화 서비스 등
		3-2	정신건강 증진	아동과 청소년 심리치유 프로그램, 직원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3-3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예방	노후시설 안전관리 지원, 안전훈련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
		3-7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예방	발암물질,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부정사례)
		3-8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 보육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돌봄 육아 사업 운영, 산모 건강관리 지원 등
		3-9	의료지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	지역병원 건강검진 협약, 장애아동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2	초등교육 및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체험 지원	영화감상 지원,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 지원 등
		4-4	청소년 진로 교육 및 청년 취·창업 교육 지원	취업 및 창업 교육, 진로 맞춤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등
		4-5	교육에서의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교육 접근성 확대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 소외지역 도서관 설립 및 재능기부, 장애인 교육 등
		4-7	인성, 세계시민의식, 생명존중, 환경보호, 역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인성교육, 역사캠프, 생명존중 문화 교육,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활동 등
5	성 평등 보장	5-2	성폭력 및 성범죄 철폐	성희롱(부정사례), 지하철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 등
		5-4	여성 고용 및 리더십 장려	여성 고용률 증가, 여성 임원 증가, 여성 창업 지원,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선정 등
		5-7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	데이트 폭력 논란 모델 광고(부정사례),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2	신재생 에너지 발전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개발 및 지원
		7-3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 온실가스 감축	탄소 소비량 감축 기술개발, 배터리 절감 기술개발, 에너지 절약 등



K-SDGs 6번
목표(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는 상수도
보급, 하수처리 등의
세부 목표를
포함하여 기업
행동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목표라 판단하여
제외.
-
13번 목표
(기후변화 대응)는
기업행동 특성상
7번 목표(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에 포함되는
행동과 일치하여
7번 목표로 통합.
-
17번 목표
(국제협력)는 국제
구조 및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평가.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8-1	지역사회 환원	지역사회에 기부 등
		8-2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는 일자리 확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고졸 인재 채용 등
		8-5	청년 고용률 증가	일자리 창출 투자, 고용 창출
		8-6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산업재해(부정사례), 산업안전 교육,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등
		8-7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등
		(추가)	노동자 권리 및 노동 안정성 확보	부당해고(부정사례), 노조탄압(부정사례), 워라밸 지원, 임금 인상 등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9-1	디지털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통신 안정성 확보	통신재난(부정사례), 공공와이파이 구축,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등
		9-2	협력사,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	협력사 기술 무단 사용(부정사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10	불평등 해소	10-2	직위 및 권력에 의한 갑질 철폐	임대료 갑질, 막말 등(부정사례), 갑질 대응 매뉴얼 제작
		10-3	장애인 불편 해소 및 인식 개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앱 개발,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스포츠 지원 등
		10-5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지원	다문화, 새터민 가정에 문화체험, 정착지원 등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1	주거 접근성 증대 및 환경 개선	도시 재생,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등
		11-5	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	재난 예방 기술개발, 산불, 지진, 태풍에 대한 재난 구호 활동 등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12-2	친환경 제품 개발	친환경 소재, 부품, 제품 등의 개발
		12-5	폐기물의 원천 예방 및 재활용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폐휴대폰 재활용, 친환경 포장 등
		12-6	지속가능 경영활동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사회적 가치 측정 등
14	해양생태계 보전	14-1	해양생물종 및 서식환경 보전	해양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활동, 해양 생물 방류 등
		14-8	어가 및 어업인 지원	어장 교란(부정사례), 어업인 지원 등
15	육상생태계 보전	15-1	육상생물종 및 서식환경 보전	산림복원, 환경정화 및 외래종 제거, 공원 관리 등
16	인권 정의 평화	16-1	기업인의 폭력 근절	폭행 사건 발생 등(부정사례)
		16-2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근절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	부정 청탁, 채용 비리, 정치자금 불법 후원, 하도급 뇌물수수 등(부정사례)
		16-12	개인정보 및 디지털 인권 보호	개인정보 유출(부정사례),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진행 등
17	국제협력	(통합)	개도국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증진	국제 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 깨끗한 식수 지원, 국외 재난 지역 후원 등

01. 연구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 제한을 목적으로 총 59개의 기업집단(그룹) 지정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 설정 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언론 자료 데이터 확보가 쉽고, 사회적 파급력과 책임 또한 크다는 가정하에 매출액 기준 상위 20% 기업집단을 선발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12개 기업집단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차례로 기업행동을 분석했고, 이번 연구 기간 동안 분석을 완료한 기업은 롯데, 포스코, 한화, 지에스, 케이티 총 5개 기업이다.

표 2.
-
상위 20% 기업집단 및
분석 완료 기업

매출액 기준 상위 20% (12개) 기업집단 선발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롯데,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케이티
분석 완료 기업 (5개)	포스코, 지에스, 롯데, 한화, 케이티

02. 연구방법 및 절차

키워드 추출

-
K-SDGs의 17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언론 보도 검색어 설정을 위하여
K-SDGs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를
word cloud로 그리고 각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함.

기사 수집

-
언론정보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에서 키워드에 맞는
기사를 수집합니다.



GS, 한화, KT, 롯데, 포스코 등
기업별 기사수집 - 언론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 활용

유형별 분류

-
수집된 10대 기업의 기사를
K-SDGs 유형에 맞게
분류합니다.



DTM(Document to matrix)를
이용해 유사한 행동을 보도한 문서를
군집화하여 분류하고, 행동별 K-SDGs
유형과 긍정 및 부정 여부를 연구진
토의를 통해 결정함. 이후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분류 결과를 학습
데이터로 입력하여 문서 분류, K-SDGs
유형 및 긍부정 분류를 자동화하였음.

평가 및 시각화

-
유형별, 기업별, 시간별로
행동을 평가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유형별, 기업별, 시간별로 기업의
행동을 평가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함.

이해관계자 의견수집 및 결과해석

-
의견 수집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시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함. 또한, 지속적으로
기업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을
구축함.

키워드 추출, 기사수집, 유형별 분류, 평가 및 시각화, 이해관계자 의견수집 및 결과해석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도구로는 R, 파이썬, SQL, 엑셀, 빅카인즈를 활용했다.

01.

빅카인즈 검색어 설정을 위한 K-SDGs 키워드 분석

검색어 예시

K-SDGs Word cloud

목표	검색어
1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가계 OR 근로빈곤층 OR 기초생활 OR 남녀노소 OR 빈곤 인구 OR 빈곤층 OR 사각지대 OR 사회보장제도 OR 사회서비스 OR 생계 OR 수급자 OR 안전망 OR 저소득 OR 저소득층 OR 취약계층 OR 취약층...)
2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가축 OR 농가 OR 농가소득 OR 농경지 OR 농업 OR 농작물 OR 밭 OR 농지 OR 식량 OR 종자 OR 농촌...)
3	(롯데 OR 포스코 OR 한화 OR GS OR KT) AND (감염병 OR 건강검진 OR 건강보장 OR 결핵 OR 고령인구 OR 약물 OR 공공보건 OR 교통사고 OR 당뇨병 OR 만성질환 OR 미세먼지 OR 발병 OR 사망 OR 통증...)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포털에서 제시하고 있는 K-SDGs의 17개 목표와 122개의 세부 목표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2회 이상의 출현 빈도를 가지는 주요 키워드를 반영하여 기업별 행동 관찰을 위한 기사수집 검색어로 활용했다.

02.

빅카인즈를 활용한 언론 보도자료 수집

표 3.
- 기사수집 조건 및 결과

목표	검색어
기사수집 조건	- 수집 기간 : 20170101~20191107, 3개년 - 대상 기업 : GS, 한화, 포스코, 롯데, KT, 총 5개 기업집단 - 키워드 : K-SDGs 기반 17개 목표에 관한 키워드 분석 결과 활용 - 검색방법 : 제목 기준으로 검색 - 언론사 :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에 해당하는 54개 언론사의 보도자료 수집
총 수집 건수	- 총 6,668건의 기사수집 - GS 621건, 한화 747건, KT 3,236건, 롯데 1,061건, 포스코 1,003건 - 단순 투자 및 주가 정보, 사실, 논평 등을 제외하여 총 4,490건의 기사로 정제 - GS 209건, 한화 537건, KT 2,217건, 롯데 784건, 포스코 743건

빅카인즈에 작성한 검색식을 넣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7일 동안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수집 조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4>와 같다.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수집한 기사는 총 6,668건이었으며, 단순 투자 및 주가 정보, 사실, 논평 등은 기업의 사건, 사고 혹은 사회공헌 활동을

다루기보다는 주가 동향 및 개인적 의견이 내용의 주를 이루었으므로, 분석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로써 GS, 한화, KT, 롯데, 포스코 기업집단의 교육, 건강, 일자리 등 K-SDGs 목표별 행동을 보도한 3개년 기사 DB를 구축하였으며, 총 기사 건수는 4,490건이었다.

K-SDGs 유형 및 공부정 사건 분류

1) 연구진 토의를 통한 K-SDGs 유형 및 공부정 사건 분류

DTM을 활용한 문서 분류

통계프로그램 R의 DTM(Document To Matrix)를 활용하여 수집한 기사를 분류했다. DTM은 문서 간 키워드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문서 간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가 가까운 문서끼리 군집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문서 분류 결과, 기간이 다르더라도 같은 주제를 가지는 문서를 하나의 군집으로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서 군집별 K-SDGs 유형 및 공부정 판단

문서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군집의 언론 보도 자료가 나타내는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진 토의를 통해 K-SDGs 유형을 결정했다. 또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K-SDGs의 목표와 상응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긍정(P)으로, 목표와 대응되는 행동이 드러나면 부정(N)으로 표시했다.

연구진 토의를 통한 K-SDGs 유형 및 공부정 사건 분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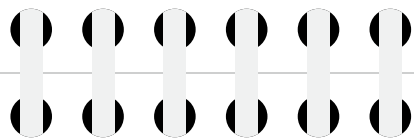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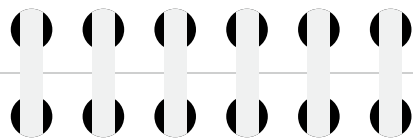
1. DTM 분석 결과

▶ 2. 연구진 토의 결과

▶ 3. K-SDGs 유형 및 공부정 판단 결과

	E	F	G	H	I	J	K	L	M	N
1	date	compa	autho	title	com	DTM	sector	sector2	토론	pn
2	20170328	국민일보	NA	[고통과 희망을 나누는 기업-GS칼텍스] 아동 심리 치유 마음톡톡 사업 4년째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3	20170611	전자신문	함봉균	1만명 어린이 마음치료 나선 GS칼텍스...'마음톡톡' 우리나라 대표 심리치유 프로그램 됐다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4	20170726	국민일보	NA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기업-GS칼텍스] 어린이 심리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 큰 호응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5	20170921	한국경제	NA	[Cover Story-GS칼텍스] 아동 청소년 1만여명 '마음톡톡' 예술치료 여수엔 문화예술공원 조성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6	20181128	경향신문	NA	GS, 아동 청소년 1만여명에 '마음톡톡' 심리치료 기회 제공	gs	1	3	3-2	건강(심리치유프로그램)	P
7	20170912	경인일보	최재훈	'근로자 사망' GS포천열병합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	gs	2	8	8-6	일자리-산업재해	N
8	20180808	매일경제	지홍구	GS포천열병합발전소 폭발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gs	2	8	8-6	일자리-산업재해	N
9	20180808	YTN	NA	포천 GS 화력발전소 폭발 사고...1명 사망 3명 부상	gs	2	8	8-6	일자리-산업재해	N
10	20180808	YTN	NA	포천 GS 화력발전소 폭발 사고...1명 사망 4명 부상	gs	2	8	8-6	일자리-산업재해	N
11	20190314	중부일보	정성욱	포천 GS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경기도의회 진상규명 '난항'	gs	2	8	8-6	일자리-산업재해	N
12	20190403	중부일보	정성욱	포천 GS 석탄발전소 진상규명 없이 추진 우려 제기돼	gs	2	8	8-6	일자리-산업재해	N
13	20171109	매일경제	조성신	부산시 GS건설, 청년 쉼어하우스 '동거동락' 조성 사업 추진	gs	3	11	11-1	주거	P
14	20180730	한국경제	김태현	부산시 GS건설, 부산 청년 쉼어하우스 조성키로	gs	3	11	11-1	주거	P

1 3 2 3



공부정 평가 모델 결과 예시

숫자 1이 부정,
0이 긍정을 나타냄.

2) LSTM을 활용한 K-SDGs 유형 및 공부정 사건 분류 자동화

앞서 구축한 5개 기업의 유형 및 공부정 분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기업의 기사를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활용한 도구는 Python, Mysql 등으로 기사 본문을 수집하는 데는 AsyncIO(비동기 처리 라이브러리)를, 자동 분류에는 Keras, tensorflow(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활용했다. K-SDGs 유형 분류 모델의 정확도는 74%, 공부정 평가 모델의 정확도는 96%였다.

```
964/964 [=====] - 32s 33ms/step - loss: 0.0047 - accuracy: 0.9990 - val_loss: 0.0012 - val_accuracy: 1.0000
Epoch 10/10
964/964 [=====] - 30s 32ms/step - loss: 0.0034 - accuracy: 0.9990 - val_loss: 0.0015 - val_accuracy: 1.0000
1072/1072 [=====] - 3s 3ms/step
테스트 정확도 : 96.2686538696289%
기사제목 : '불법 정치후원의혹' 수사 다시 수면 위로?...KT 공식 언급 자체 / 원래 라벨 : 1 / 예측한 라벨 : 1
기사제목 : 포스코 플린트오션병사단, 포항 바다서 해양쓰레기 5톤 수거 / 원래 라벨 : 0 / 예측한 라벨 : 0
기사제목 :檢, '불법 정치자금' KT 임원 구속영장 신청 또 기각 / 원래 라벨 : 1 / 예측한 라벨 : 1
기사제목 : KT-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 안전 솔루션 공동 개발 업무협약 / 원래 라벨 : 0 / 예측한 라벨 : 0
기사제목 : 롯데, 인도네시아 재난구호 2.3억원 성금 지원 / 원래 라벨 : 0 / 예측한 라벨 : 0
기사제목 : KT, 산림청과 스카이스킬 활용 재난관리 시연 / 원래 라벨 : 0 / 예측한 라벨 : 0
```


중복 기사 정제
방법 예시

←기업명, 세부목표 유형, 공부정 조건 일치시, 기사 발간월에 따라 사건이 구분되어 동시&중복보도 정제 가능→

→조건 일치←

id	year	month	ym	date	compa	autho	title	com	sector	sector2	pn
01500701	2019	1	201901	20190128	부산일보	곽진석	[단독] 광화수소 누출 사고 포스코 관계자 등 7명 입건	psc	8	8-6	N
01100611	2019	1	201901	20190129	서울신문	김정환	'10명 사상자'낸 부산 광화수소 사고 ... 포스코 업체 뺄방 과실 입건	psc	8	8-6	N
08100201	2019	2	201902	20190207	MBC	장성훈	[단독] "심장마비라더니" 포스코 산재 온폐 의혹	psc	8	8-6	N
08100201	2019	2	201902	20190208	MBC	장성훈	부검해보니 장기 파열 포스코, 산재 온폐 의혹	psc	8	8-6	N
02100201	2019	2	201902	20190208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사망, 사실 왜곡할 이유 없어"	psc	8	8-6	N
02100201	2019	2	201902	20190208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포스코 근로자 사망, 산재 가능성 제기	psc	8	8-6	N
02100311	2019	2	201902	20190208	서울경제	노진표 기자	포스코 직원 설 연휴 근무 중 사망 경찰, 산재 가능성 수사	psc	8	8-6	N
01100801	2019	2	201902	20190208	조선일보	최효정 기자	포스코 직원 설 연휴 근무 중 사망... 경찰 산재 가능성 조사	psc	8	8-6	N
02100701	2019	2	201902	20190209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故김용균 발인날 포스코 "직원 사망 안타깝다"	psc	8	8-6	N
02100851	2019	2	201902	20190209	아주경제	오수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사망 원인 규명 최선"	psc	8	8-6	N
07101201	2019	2	201902	20190209	디지털타임스	김강혁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망 사고 온폐 이유 없다"	psc	8	8-6	N
02100701	2019	2	201902	20190209	헤럴드경제	김병진 기자	포스코 직원 심장지 아닌 운전설비 중 사망 '논란' 경찰 2차 부검 의뢰	psc	8	8-6	N
01100201	2019	2	201902	20190210	국민일보	포항=안철수	포스코 직원 사망 원인두고 유족반발	psc	8	8-6	N
02100201	2019	2	201902	20190211	머니투데이	세종=최우	고용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산재 가능성 있다"	psc	8	8-6	N
01500601	2019	2	201902	20190211	매일신문	배형욱	포스코 직원 장파열 의심 사망 사고 관련, 현장 직원들 "기기설비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 높아"	psc	8	8-6	N
08100201	2019	2	201902	20190212	MBC	장성훈	"포스코, 산재 온폐 의혹"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psc	8	8-6	N
01100901	2019	2	201902	20190215	중앙일보	이지영(lee)	경찰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포항제철소 압수수색	psc	8	8-6	N
01101101	2019	2	201902	20190215	한국일보	NA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경찰 포항제철소 압수수색	psc	8	8-6	N
01100801	2019	2	201902	20190216	조선일보	박소정 기자	포스코 직원 사망 사건 경찰, 15일 포항제철소 압수수색	psc	8	8-6	N
01500801	2019	2	201902	20190218	영남일보	김기태기자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3개 부서 압수수색	psc	8	8-6	N
01100801	2019	2	201902	20190219	조선일보	최지희 기자	"포스코 직원 사망은 20대 인턴의 크레인 작동 미숙 때문"	psc	8	8-6	N
01101101	2019	2	201902	20190219	한국일보	NA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기계조작 인턴직원 과실혐의 입건	psc	8	8-6	N
01100611	2019	2	201902	20190219	서울신문	김상화	포스코 직원 크레인 조작으로 사망, 동료 직원 과실 입건	psc	8	8-6	N
01500801	2019	2	201902	20190220	영남일보	김기태기자	포스코 직원 사망 관련 동료직원 과실혐의 입건	psc	8	8-6	N
01100101	2019	2	201902	20190222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단독]직원 산재 사망 의혹에 사내 해명자료 배포 '집안 단독'에만 급급한 포스코	psc	8	8-6	N
02100311	2019	3	201903	20190305	서울경제	김호경 기자	'광화수소 누출 사고' 포스코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기각	psc	8	8-6	N
01400351	2019	5	201905	20190513	중도일보	원영미 기자	건설 산재사망사고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 10건'	psc	8	8-6	N
02100851	2019	6	201906	20190601	아주경제	조은국	광양 포스코 공장 폭발사고 발생...근로자 2명 부상	psc	8	8-6	N
01600201	2019	6	201906	20190602	광주매일신	광양=허선	광양 포스코서 정비 중 폭발 근로자 2명 부상	psc	8	8-6	N

표 4.
중복 기사 정제 결과

2) 정제 결과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 내용을 동시에 보도하거나,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유사한 내용으로 사건 경과를 중복으로 보도하는 경우를 정제하여 총 949건의 사건 발생 수를 확인했다. 긍정 사건보다 부정사건에서 사건 발생 당 보도 건수(중복 보도율)가 높게 나타났다.

구분	보도 건수 기준 (정제 전)	사건 발생 건수 기준 (정제 후)	사건 발생 당 보도 건수 (정제 전/정제 후)
총 기사 건수	4,490 건	949 건	약 4.73 건
긍정행동(P) 기사	1,846 건	755 건	약 2.44 건
부정행동(N) 기사	2,644 건	194 건	약 13.6 건

긍정행동 기사에서 가장 중복 보도 건수가 많았던 경우는 KT의 11번 목표에 관한 기사 (사건 발생 당 보도 건수 약 8.77건)였다. 재난 안전공급망 구축과 관련하여 다수의 중복 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행동 기사에서 가장 중복 보도 건수가 많았던 경우는 KT의 16번 목표에 관한 기사 (사건 발생 당 보도 건수 35.07건)였다. KT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다수의 중복 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도 건수 기준 자료는 세부 로그 분석 시 사건의 발생 시기와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건 발생 건수 기준 자료는 K-SDGs 유형별, 기업별 행동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행동
DB를 활용한
기업행동
이력 평가

1) 유형별 상대 평가 : K-SDGs 17가지 유형별로 기업의 행동 이력을 상대 평가

유형별 상대 평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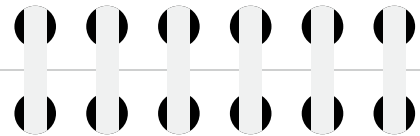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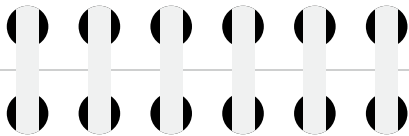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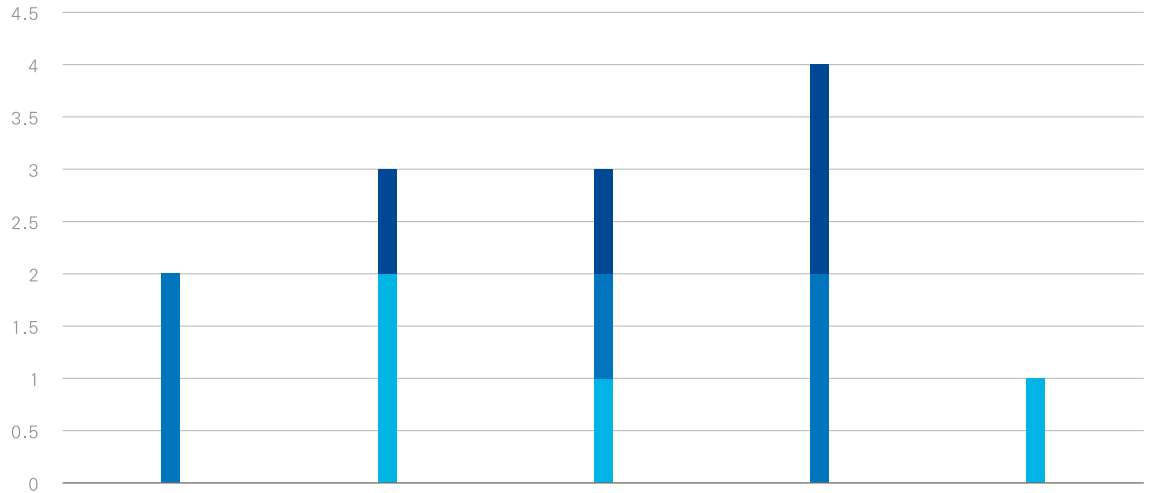
각자의 관심사 혹은 가치관에 따라 유형별로 기업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별 상대 평가를 진행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K-SDGs 2번 목표와 관련이 있는 농촌 지원 활동에 대하여 기업별 활동 목록을 만들고, 이를 그래프로 그렸다. 5개 기업 중 활동 개수와 활동 지속성 측면에서 롯데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기간에는 5개 기업만을 평가하여, 국내외 전체 기업집단과의 비교 결과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평가 기업들을 늘려간다면 K-SDGs 유형별 기업 활동을 한 눈에 비교할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표 5.
-
기업별 목표 2 관련
활동 목록
(농촌 지원 활동)

GS	Hanwha	KT	LOTTE	POSCO
지역 농가 지원 및 상호협력 MOU 체결 2018 • 울릉군 특산물 유통 협력 2018	도농연계 사회공헌 활동-일손돕기 봉사 및 직구매 등 2017 • 한화 신임 임원 겨울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 2017, 2019	농촌 일손 봉사 및 실비 기부 활동 2017 • 농업인 실익증진 MOU 체결-농기계 관리 및 농외소득 증진 등 2018 • ICT 기술 활용 농촌 삶의 질 증진 사업 2019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협약 체결 2018 • 청년 농부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18, 2019 • 양파 농가 돕기 양파데이 운영 2019	농촌 재능 나눔 광양제철 전기봉사단 농림부 장관상 수상 2017

●
목표 2.
농업-농촌 지원에 대한
기업 상대 평가 예시

■ 2017 ■ 2018 ■ 2019



1) 세부 로그 분석

세부 목표에 대한 기업의 행동을 월별로 살펴보는 세부 로그 분석을 했다. 세부 로그 분석에는 월별 보도 건 수 데이터를 활용했고, 주요한 사건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사건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하며 흥미롭게 보았던 일부 내용을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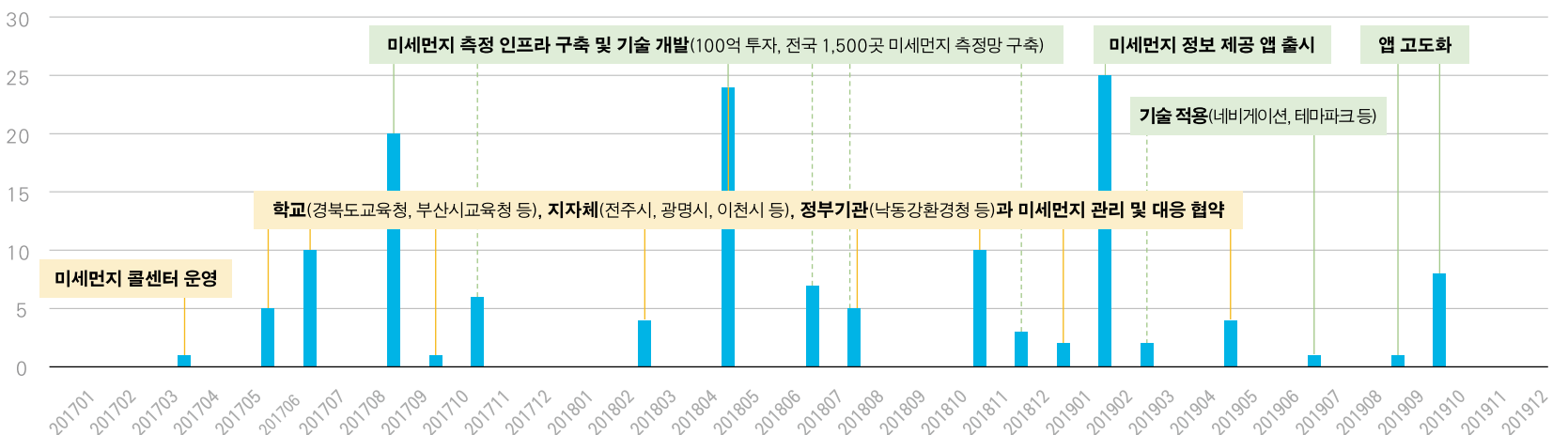
3-7 :

KT 세부 로그

KT 미세먼지
관리 활동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예방

KT는 미세먼지 관리 활동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지속해왔다. 미세먼지 콜센터 운영, 학교, 지자체, 정부 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행동을 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더욱더 촘촘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앱(APP)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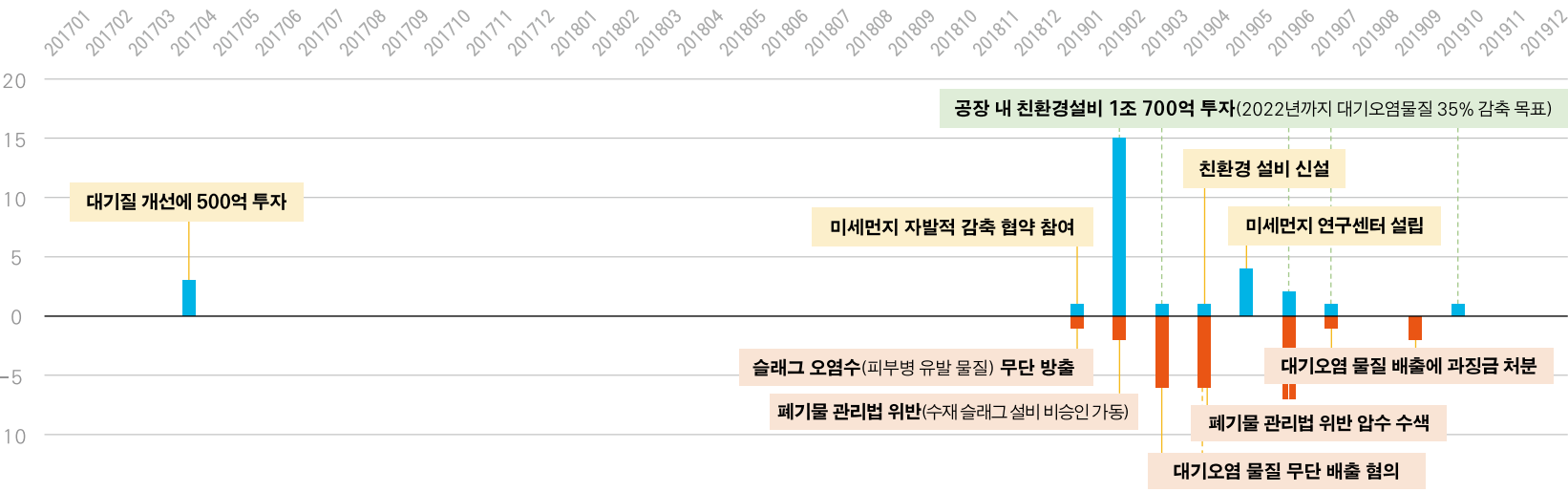
3-7 :

포스코 세부 로그

포스코 오염물질
무단방출 행동 및 대응
이력

유해 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 예방

포스코는 2017년 대기질 개선 부문 500억 투자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9년 1월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동시에 포항에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슬래그 오염수를 운송과정에서 무단 방출한 혐의가 있었으며, 같은 해 2월 수재 슬래그 설비를 승인받지 않고 운영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 이후 압수수색이 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경북도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리하여 논란이 되었다. 또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건에 포스코는 사실이 아니라 밝혔으나, 이후 전남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포스코는 공장 내 친환경설비에 1조 700억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3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P(긍정) N(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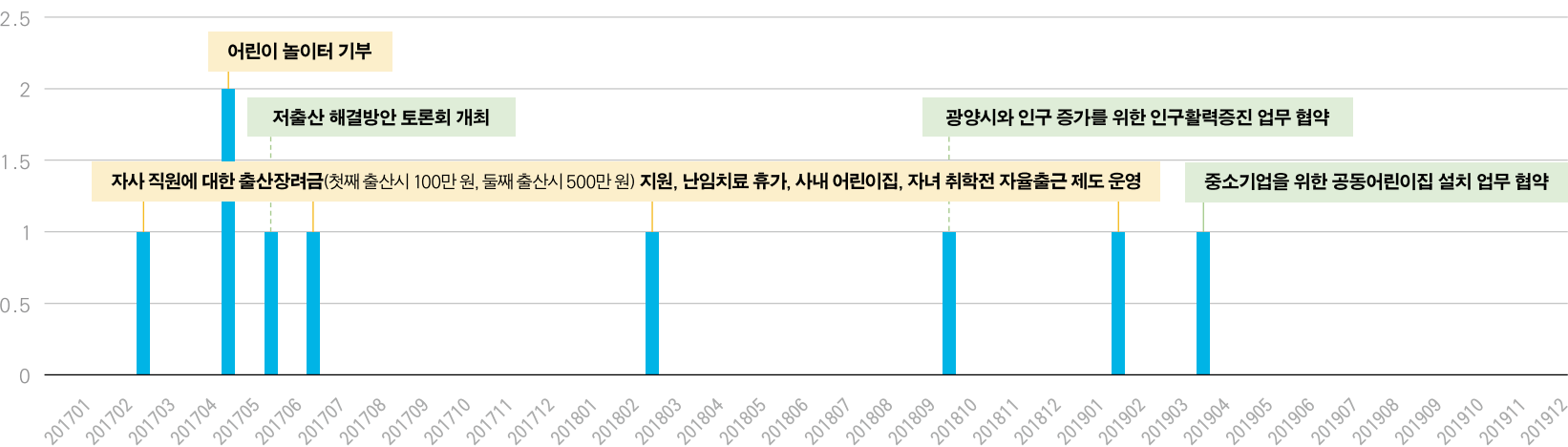
3-8 :

포스코 세부 로그

포스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 및
보육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 보육 지원

포스코는 자사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 난임 치료 휴가, 사내 어린이집, 자녀 취학 전 자율출근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지역사회에 어린이 놀이터를 기부하고, 직접 이케아 등 국외 우수기업을 초청하여 저출산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이력이 있다. 이어서 2018년에는 광양시와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 활력 증진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2019년에는 중소기업 및 협력사에도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다.



P(긍정) N(부정)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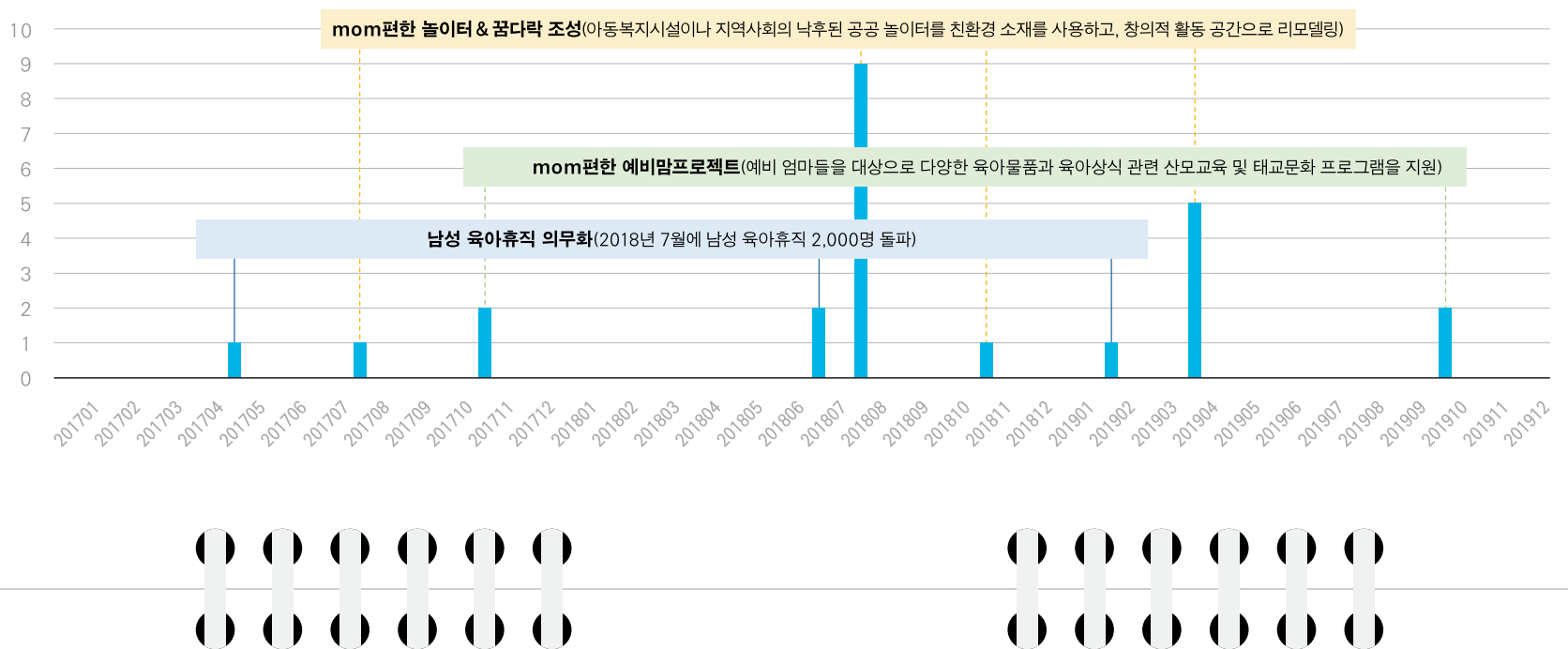
롯데 세부 로그

롯데 육아휴직
활성화 및 출산·보육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롯데는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여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에 2018년 7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이 2,000명을 돌파했다. 2019년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 육아 관련 사회공헌브랜드 ‘mom 편한’을 운영하며 아동복지 시설 및 지역사회의 낙후된 놀이터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동 쉼터를 만들고, 예비산모에게 산모 교육 및 태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9-1 :

KT 세부 로그

KT 디지털 정보 접근성
확대 활동과 통신 재난
발생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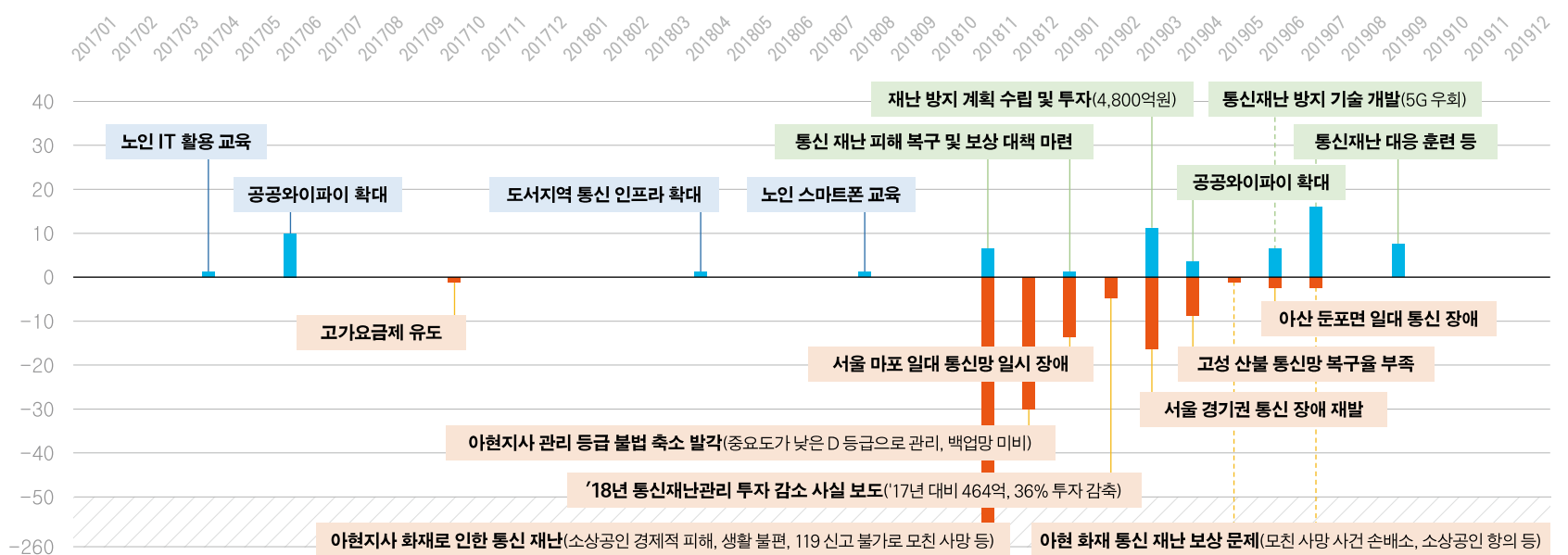
디지털 정보 접근성 확대 및 통신 안정성 확보

KT의 노인에 대한 IT 활용 교육, 스마트폰 교육이 각각 2017년, 2018년 이력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무료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확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도서 지역에 통신 기술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국회에서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질의를 받은 이력도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발생한 아현화재 통신재난을 시작으로 통신장에 사건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재난 사건 발생 이후, 그 원인을 밝히는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아현 지사는 백업망 구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D등급으로 축소 관리되고 있었으며, 통신 재난관리에 대한 KT의 투자가 36%가량 감소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통신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과, 119 등 응급신고를 하지 못해 생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소리도 계속되었다. 2019년 1월에는 서울 마포 일대, 3월에는 서울 경기권, 6월에는 아산 둔포면에서 통신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KT는 통신재난 발생 시 보상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온라인 접수창구를 만들었다. 약 4,800억 원을 재난방지에 투자하고, 재난 발생 시 5G로 우회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태풍 등이 발생하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통신 재난 대응 훈련을 운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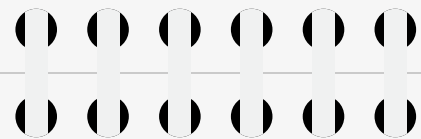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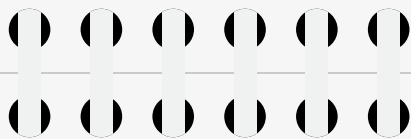
정보 공유를 위한 시각화 및 웹 페이지 제작

01. 시각화

1) 시각화 내용

세부 사건 시각화 - 뇌물·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뇌물, 비리 사건의 경우 단일사건의 진행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1개월에 1건의 내용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집된 기사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할 수 없었기에 이를 개선한 시각화 자료를 만들고자 했다. 기업 중 뇌물·비리 기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KT를 대상으로, 기사수집을 통해 국정농단 관련 비리, 채용 비리, 정치자금 불법 후원 등 6개의 뇌물·비리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채용 비리 사건을 시각화 주제로 채택하였다.



사건 개요

KT 채용 비리 사건은 2018년 12월 한겨레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딸의 KT 특혜채용의혹을 보도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2018년 2월 퇴사했는데,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유력인사 자체 현황을 정리한 VVIP 명단에 대한 증언(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요청했다는 증언(서유열 전 KT 홈 고객센터 사장)이 있었다. 이에 이석재 전 KT 회장은 11명에 달하는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였다.

김 의원에 대하여 검찰은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재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해줬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020년 1월 17일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요청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여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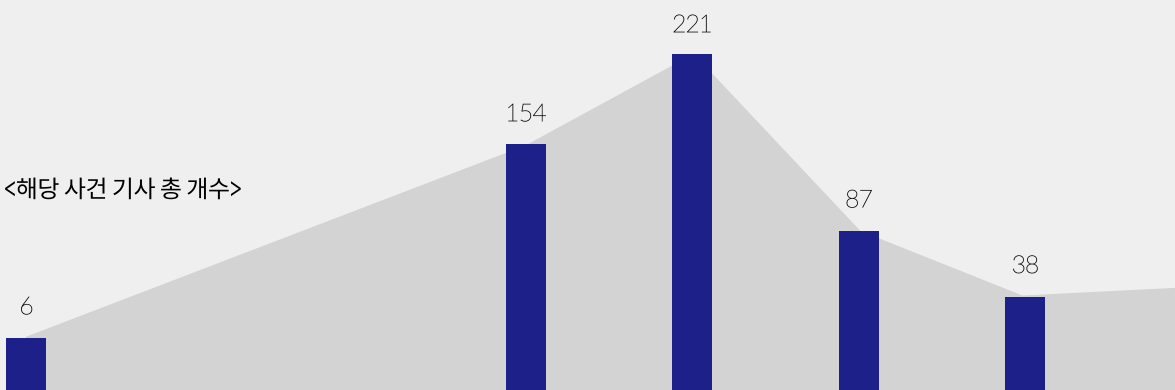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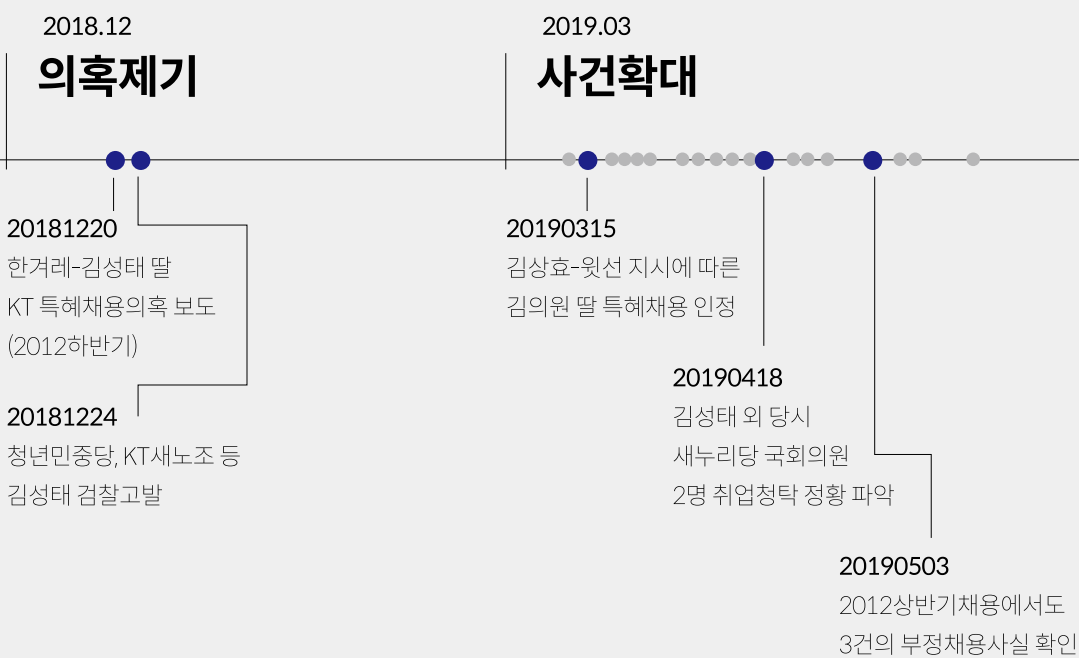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3개년 기업행동

3개년 기업행동의 시각화를 위해 연도별로 긍정 사건 수, 부정 사건 수, 긍정 사건에서 부정 사건을 뺀 수를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사건에서 부정사건을 뺀 수를 “평가 점수”로 정했다. 즉, 우리는 K-SDGs 유형별 행동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기업을 평가한다면 제조업 기반의 기업은 환경 부문에서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면 제조업 기반 기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강구한 행동 이력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긍정행동에서 부정행동 사건 수를 빼는 방법은 영향의 크기와 상관없이 긍정과 부정을 1대1로 치환하는 방식이므로 향후에 보다 더 발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행동을 나타내는 연도별 사건 수를 엑셀 기반으로 분석한 후 시각화에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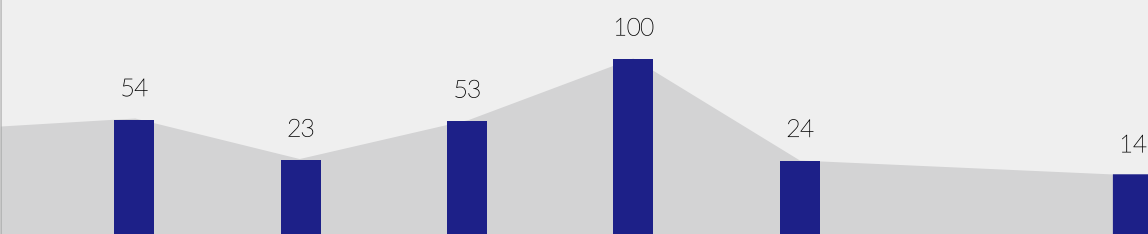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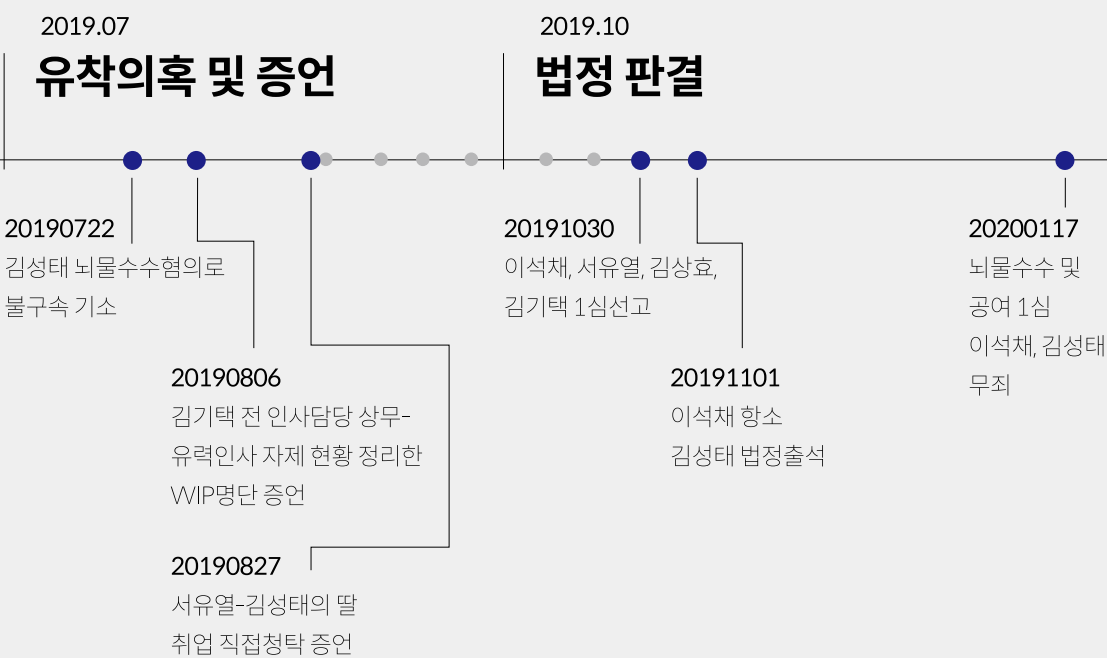
2) 시각화 결과

KT공채 스펙초월해 엄빠중심 평가

2018년 12월 한겨레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딸의 KT 특혜채용의혹**을 보도했다. 김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2018년 2월 퇴사했는데,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유력인사 자제 현황을 정리한 WIP명단에 대한 증언(김기택),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요청했다는 증언(서유열)이 있었다. 이에 **이석채 전 KT회장은 11명에 달하는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 **채용비리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 17일, **재판부는 서유열의 증언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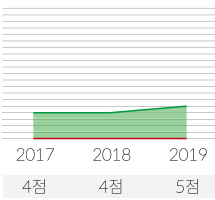
김성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유열 전 KT홍고객본부 사장
이석채 전 KT회장
김상호 전 KT 인재경영실장(인사관리)(전 임원)
김기택 전 KT인사담당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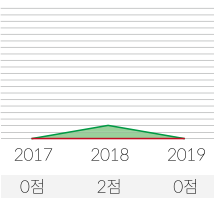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3개년 기업 행동

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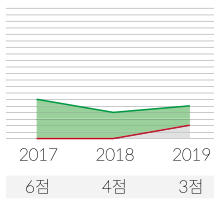
1.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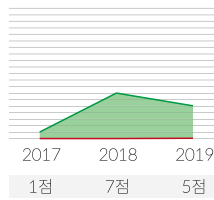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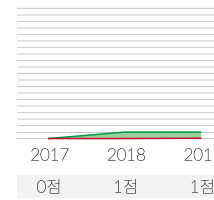
4. 교육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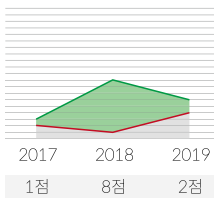
5. 성평등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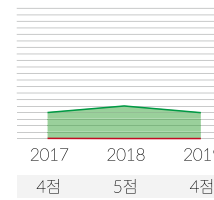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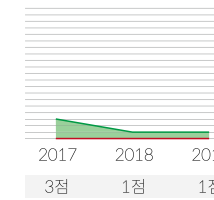
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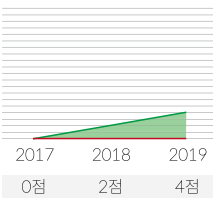
10. 불평등 해소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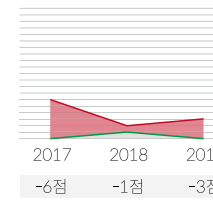
14. 해양생태계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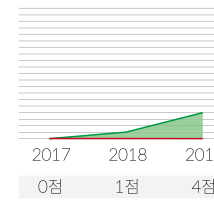
15. 육상생태계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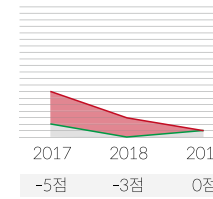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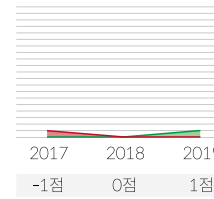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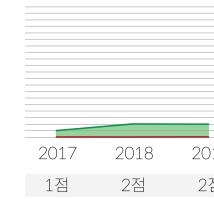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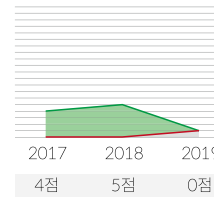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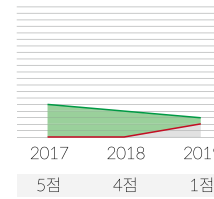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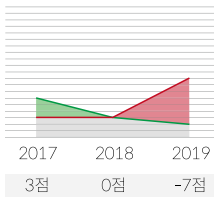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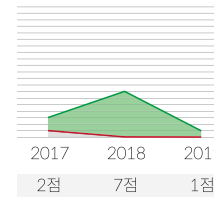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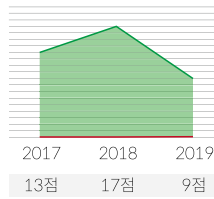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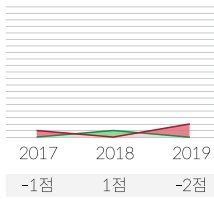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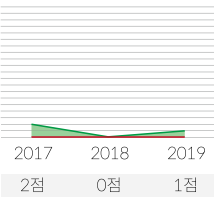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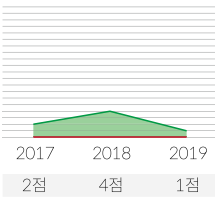
16. 인권·정의·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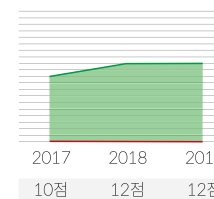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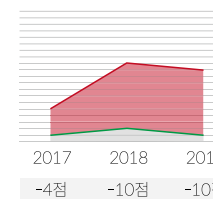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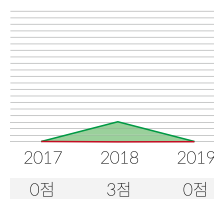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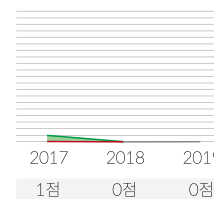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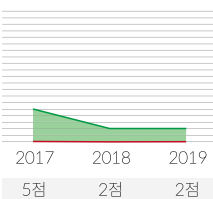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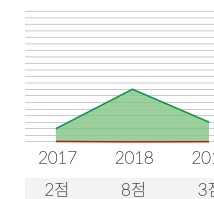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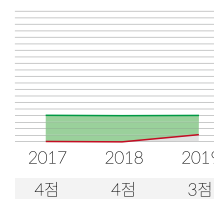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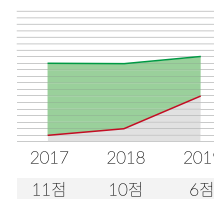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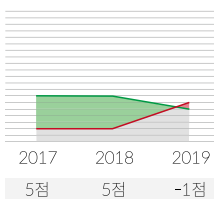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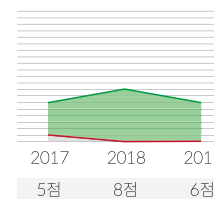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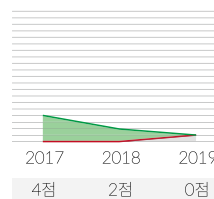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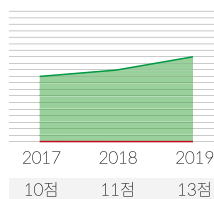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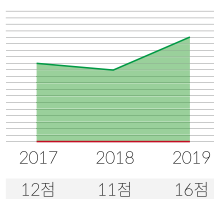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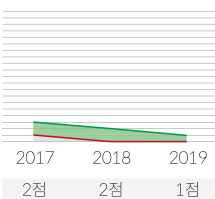
17. 지구촌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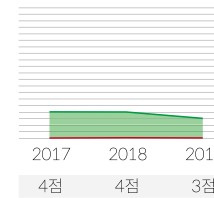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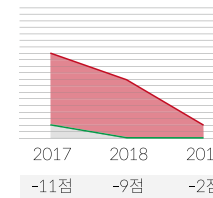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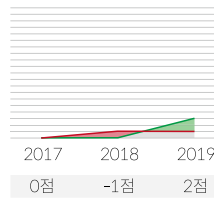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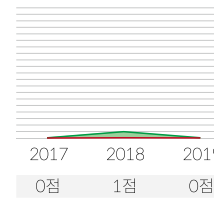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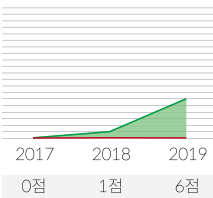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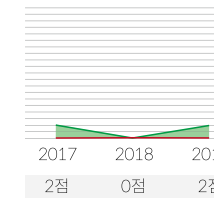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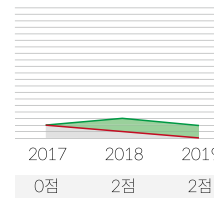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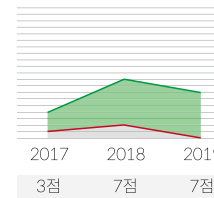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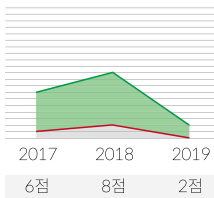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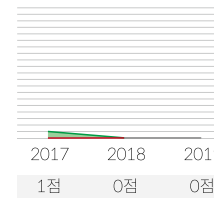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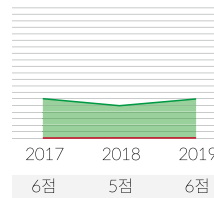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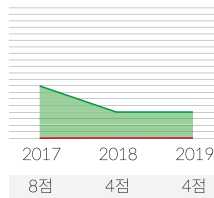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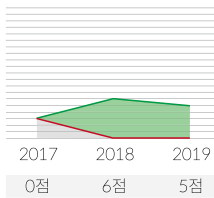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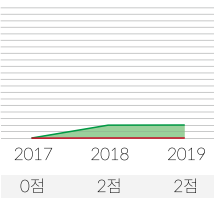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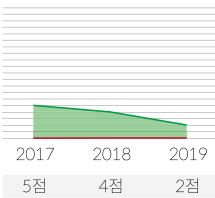
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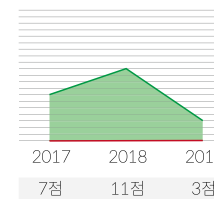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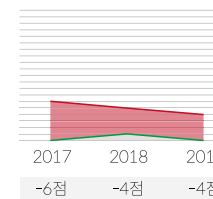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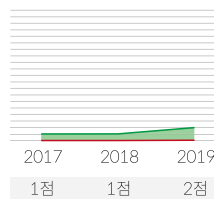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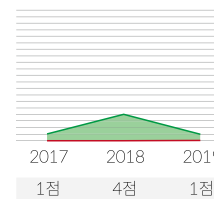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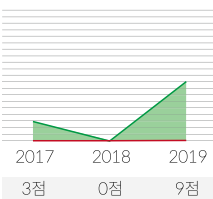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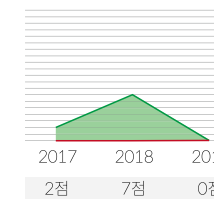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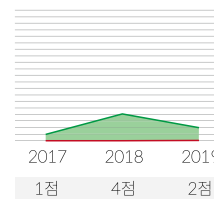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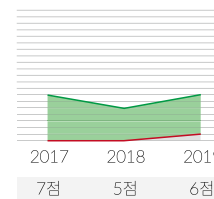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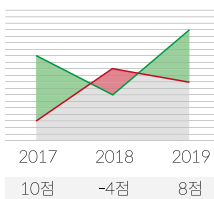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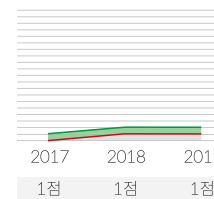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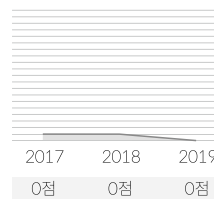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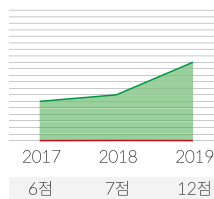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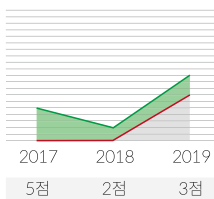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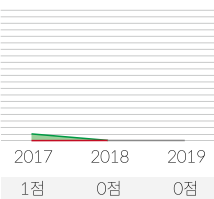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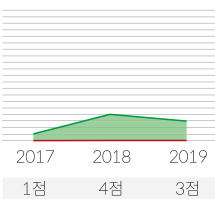
KT



롯데



포스코



공정 사건 개수
부정 사건 개수
*평가 점수 계산식 = (공정 사건 개수) - (부정 사건 개수)

만점팀의 시민연구 결과를 웹페이지의 형태로 가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제작 시 웹 프레임워크는 Django 2.2, 서버 인프라는 Google Cloud Platform을 이용했다.

웹 제작 절차

-

1. Django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2. 프로젝트 소개 및 경과를 퍼블리싱합니다.

3. 뉴스 수집한 Mysql database를 Django 모델과 매칭시켜서 import 합니다.
4. 뉴스 검색, 가치평가 등의 기능을 개발합니다.

5. Google Cloud Platform(GCP)의 App Engine을 활용해 서버를 세팅합니다.
6. Django 프로젝트를 GCP에 업로드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manjum.kr>

주요한 개발 내용은 뉴스 검색기, 뉴스 분석기 2가지다. 뉴스 검색기에서는 우리가 수집한 언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명으로 필요한 기업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다. 뉴스 분석기에서는 새로운 기사의 본문을 입력하면 머신러닝 기술로 판정된 K-SDGs 유형과 공부정 유형을 알려준다.

뉴스 검색기

-

1. 키워드 검색 : 만점에서 수집한 뉴스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가치 검색 : 만점에서 평가한 뉴스를 17가지 유형의 가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검색결과 : 검색결과가 표시되고 뉴스를 클릭하면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검색기는 초기 수집된 기사 DB로 개발되어, 현재 최종 분석 DB로 수정 중입니다.

뉴스 분석기

-

1. 뉴스 본문을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복사합니다.
2. 기사 분석기에 붙여넣기하고 분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분석 시간이 30초가량 소요됩니다)
3. 만점이 연구한 데이터 기반으로 가치평가, 긍정/부정 평가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미지, 특정 문자 등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요청이 많으면 분석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마치며

VI.

기업의 쏟아지는 사건·사고와 이슈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지 생각했다.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의 질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업을, 특히 연구대상이었던 기업집단을 하나의 행위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은 많은 사건·사고들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나의 기업을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 연구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기업을 어느 한 가지 성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기준들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활동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7개 영역을 포괄하는 K-SDGs는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도구였다.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이 어떤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영역에서 모범적인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시간상의 한계로 모든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못했고, 많은 사건 중 어떤 사건을 채택하여 시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었다. 기업행동을 평가할 구체적 지표 또한 설정되어있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느낀 문제점들은 앞으로 활동을 지속해나가며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기업 활동에 관한 SDGs 지표가 국가 차원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ISO26000 등 다른 기준들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 정제되고 유용한 정보들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행동을 분석하자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의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진행한 만점팀의 연구 후기를 공유해본다.

시민 조효진

불매운동 왜 해? 그 기업은 왜 좋아?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정보는 모으되, 맥락을 잃지 않도록, 기업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희망제작소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시민연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업별로 보도된 기사를 모으는 일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엑셀 시트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갈피를 못 잡는 게 당연했구나!'. 기업의 환경오염, 산업재해, 뇌물 비리 사건들은 물론이고, 청년 고용, 기부 활동, 국제협력 등의 활동을 담은 기사들이 시끄럽게 섞여 있었다. 그러니 두 번째로는 든 생각은 '이걸 분석한다고 기업의 좋고 나쁨을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결론적으로, 연구를 마무리한 지금도, 좋은 기업을 딱 하나 꼽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연속된 사건 속에서도 개선을 하지 않았는지를 안다. K-SDGs 세부 목표로 관심사를 특정해서 몇 년간의 기업행동을 살펴보면, 기업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기업행동 세부로그'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나는 제일 재미있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왜 가치지향적 소비를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되뇌었다. 기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으로서 기업에 줄 수 있는 상과 벌이 '소비행위'라고 어렵פות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생각은 거의 확신이 되었다. 기업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었고, 시민과 시민단체도 소비행위를 의사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지금은 이것이 아주 작은 흐름, 우리의 연구가 그 속의 아주 작은 시도일지라도, 이 흐름은 지속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는다.

시민 정혜정

'소비'는 사람들의 거의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위이지만,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관심사나 가치관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물건을 구매 또는 불매하는 행동은 다수의 뜻이 모인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개인적으로 불매를 하는 기업이 있다. 하지만 이슈 직후와 달리, 지속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관찰하며 기업의 대응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단순히 관심이 식어서라고 치부하기엔 언론에 비치는 절대적인 기사의 양 또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며 사건의 종합적인 정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잡게 되었다.

우리의 연구 수단은 '빅카인즈'라는 언론 빅데이터였다.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정제해 시각화하는 것은 단순한 덩어리에 스토리를 만들어 쉽게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나는 수집하고 분류한 언론 빅데이터를 시각화해 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한 사건의 자세한 로그를 만드는 것, 둘째는 5개 기업의 3년간의 행동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었다. 로그를 통해 흩어져있는 정보를 모아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사건의 발단, 기업의 대응, 그리고 결과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5개 기업 비교 그래프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변화하는 기업의 행동과 기업별 주력하는 목표 등이 한눈에 보여 만들면서도 매우 흥미로웠다.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결과지만,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도였기에 재미있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연구가 꾸준히 쌓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고 만점 기업과 만점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 이성화

프로불매운동으로써 무언가를 구매할 때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지,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긴지, 노동자들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런 정보들을 주로 신문 기사로 접한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재미있으리라 생각했다.

나의 연구 목표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기사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욕심을 내서 시민들이 직접 기사를 분석할 수

있는 웹서비스도 만들어 보았다. 기업 행위의 세부가치 분류작업, 그 세부가치에 따른 뉴스 가치 분류에도 조금 참여했다. 기술적으로는 뉴스 본문 크롤링, 머신러닝을 활용한 뉴스 본문 데이터 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뉴스 데이터 가치 분석 기능 개발했다. 끝나고 돌아보니 미디어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가지 못했다. 많은 뉴스를 어떻게 컴퓨터로 읽고 분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시각화 자료로 제시된 개별 기업분석 및 가치 분류에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팀원들과의 수다와 시민 인터뷰, 단체 인터뷰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그 정보의 가치와 비례해서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SNS로 리트윗 몇 번에 전 세계로 정보가 퍼지는 세상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최근에는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이 많아서 진위를 판별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통로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기술을 통해서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다. 이런 실험을 지지해 주고 함께 연구한 동료들도 정말 고맙다. 시민연구를 하면서 기술적인 상상력과 내적인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 다른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시민 주영진

두 가지 일을 맡았다.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 KT 및 롯데의 뇌물 비리 사건 경과를 조사하는 것이다(사회과학 대를 나왔기 때문이었다). 설문 조사의 경우 뉴스레터 사이트를 통해 보기 설문 양식을 만들고,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들의 메일 주소를 수집해 연락을 취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답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기자들은 우리 연구에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할 동기가 없으므로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며 개별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 경과 조사는 (1)여러 비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후속 기사가 섞이는 문제 (2)사건이 조사 및 재판단계로 들어서며 등장한 복잡한 법률용어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시민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든다는 우리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기업에도 권선징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 초기의 궁금증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다. 일본 불매 등에서 보았듯 소비와 가치를 연결하는 행위가 나타나며 기업 또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와 호감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까지 반영한 대답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하고 악한 행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포착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팀원들간 논의의 대부분은 위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발전의 여지는 있다. 시작이 반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첫 연구를 끝마치기까지 했다!

시민 박민정

불매운동을 하고 있던 일본기업이 사실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매로 이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파급효과를 주게 된다면, 이는 옳은 건가? 고민스러워졌다. 또한, 단순히 한국을 깎아내린 일본기업이란 이유로 불매를

시작했다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불매하는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만점 프로젝트에서 2가지 활동에 참여했다. 먼저 기업에 관한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 언론에 대한 기업의 생각을 듣기 위한 수단으로 설문 조사를 택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기업에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이메일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이를 공개한 기업은 없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나 인맥도 없어 시민연구가로서 한계를 느낀 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포스코 주주 비리에 대한 로그를 정리했다. 프로그래밍으로 선별한 기사를 바탕으로 로그를 정리하러니, 기사마다 인물을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 애를 먹었다. 어떤 기사에서는 A라고 표현한 인물은 다른 기사에서는 B로 지칭되는 등, 기사 본문은 일일이 파악해야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사마다 사건을 다루는 깊이가 달랐다. 단순히 얼마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표현된 기사가 있지만, 자동차, 금품 등 구체적인 내역을 표기한 기사도 있었다. 서로 다른 기사를 하나로 정리하러니 그 기준을 잡기 어려웠다. 또한, 언론만으로 로그를 정리하기엔 신뢰도가 부족하던 생각이 들었다. 같은 사건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된 것이 있어 언론기사가 100%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프로젝트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SDGs의 기준을 기업 활동에 적용해보았다. 줄곧 SDGs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3~4년 전만 해도 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던, 설명하려면 한참이 걸리던 개념이지만 어느새 시민사회까지 내려왔음을 느꼈다. 기업은 본연의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이다. 만점 프로젝트는 아직 미흡하고 더욱 고민해야 할 점이 많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기업과 시민에게 모두 경종을 울리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만점 팀 조효진 · 불매운동 왜 해?



그 기업은 왜 좋아?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고 싶었

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더라고요. 정보는 모으되, 맥락을

잃지 않도록, 기업의 이력을 분석하고 싶었어요. ◆ 만점 팀 주영진 · 착한 행동은 보상을 받고 악한 행동은



비판을 받는 권선징악이 기업에도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상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만점 팀 이성화 · 사실 저는 프로 불매

운동러예요. 신문 기사를 즐겨 보는 편이라 SNS나 포털 등에서 항상 뉴스를 읽곤 하는데 읽고



넘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점팀과 함께 내가 접하는 미디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 만점 팀 박민정 · 하나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듯이, 기업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소비를 결정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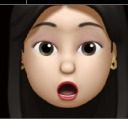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줄

알았던 애가 사실은 제일 나쁜 짓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기업의 다면적인 모습을 보고 결정한, 나를

고귀한 선택이 모여 좀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되길 원해요. ◆ 만점 팀 정혜정 · 이슈가 보도되면 해당

기업이나 물건에 불매운동이 일만큼 관심이 집중되지만, 그 후의 행보는



사실 관심을 두고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어요.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